

제3회 119문화상 수상예정작 (수 필)



공모 기간 2021.6.1.(화) ~ 6.30.(수)

참가 자격 고등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신인 또는 기성작가 참가 가능)
※ 1인당 1점 출품 가능

참가 방법 온라인 접수 (119문화상 누리집 <http://119contest.fire.go.kr>)

작품 소재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관, 과거 대형재난(한성 대화재 등) 등 소방안전과 관련된 소재로 한 작품

※ 단, 특별상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효과 및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 등을 소재로 한 작품

공모 분야

문학분야		미술분야		#특별상
동화	소설	상상화	기록화	수필
A4 6장 내외	A4 18장 내외	30호 40호		A4용지 4장 내외
		※ 휘화 분야로 손그림만 인정		

시상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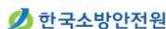
구분	미술 16점	문학 24점
대상 2점	대상 1점 (상금 300만원)	대상 1점 (상금 300만원)
금상 4점	상상화 1점, 기록화 1점 (각 150만원)	동화 1점, 소설 1점 (각 150만원)
은상 4점	상상화 1점, 기록화 1점 (각 100만원)	동화 1점, 소설 1점 (각 100만원)
동상 2점	부문통합 1점 (50만원)	부문통합 1점 (50만원)
특선 20점	부문통합 10점 (각 20만원)	부문통합 10점 (각 20만원)
특별상 8점	—	8점 (수필) 칭정상 4점 각 20만원 원정상 4점 각 20만원

추진 일정(예정)

▶ 결과발표 9월 중, 시상식 10월 중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National Fire Agency 119

소방청 (대변인실)

접수번호	27	제 목	4만원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	----	-----	------------------

4만원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신사임당 한 장에 못 미치는 4만원으로 치킨 두 마리를 시켜먹을 수 있고, 짜장면 두 그릇을 탕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고, 연인과 함께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다. 많다고 하기엔 뭔가 조금 부족한, 하루이틀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다.

3년 전엔 이 4만원이 어느 사람들의 생사를 갈랐다. 종로의 국일고시원의 화재에서 말이다.

나도 시골에서 상경해서 잠깐 고시원에 살았을 때가 있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미화되지 않는 때였다.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1평짜리 방이 한 층에 15개씩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시원에선 일과 걱정으로 예민해진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발을 들고 조용히 걸어다녀야 했다. 누군가 밥을 늦게 먹어 냄새를 풍기거나 밤에 화장실에 다녀오며 소리라도 낸 날이면 욕이 붙어 있는 쪽지는 차라리 예의바른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주먹다짐이 일어나기 일쑤였고, 나 역시도 어느 날 악몽을 꾸고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른 날에 어떤 새끼야!하는 수십 명의 욕지거리를 들었다.

그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취미는 일찍 밥을 먹고 난 뒤 고시원 방 창문에서 바깥을 둘러 보는 것이었다. 두 뺨 남짓 되는 창문에는 야근하는 사람들이 밝히는 멋진 서울의 야경이 있었고, 밤거리를 즐기러 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고, 숨 쉴 틈도 없이 짹 찬 퇴근길의 차들이 신호에 따라 딱 손 한 뺨 움직이고 다시 멈춰 서서 걸어서 퇴근하는 사람들보다 느린 어이없는 광경이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꿈을 꾸었다. 언젠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이 답답하고 지겨운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뇌이며 한참 동안 바깥을 본 후에야 잠을 청했다.

그 창문은 짹 막힌 고시원 세상과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나는 그곳이 있었기에 답답한 고시원에서의 외로운 상경 생활 속에서도 겨우 숨 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창조차도 없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불씨는 301호의 전기난로에서 시작되었다. 불은 곧 302호와 303호로 번졌고 3층의 출입구를 막았다. 2층의 사람들은 전부 대피할 수 있었지만, 출입구가 불로 막혀 있던 3층에서는 일부만이 탈출할 수 있었고 결국 7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의 더욱 가슴 아픈 점은 생존자 중에는 화재로 인해 출입구가 막혔음에도 창문으로 나와서 에어컨 배관을 타고 바닥까지 내려오거나 완강기를 사용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죽은 3층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망자들 대부분이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해야 했다는 점이다. 창문이 없는 방은 월세 28만원, 있는 방은 32만원으로 4만원이 3층 사람들의 생사를 갈랐다.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다. 막노동도 경쟁이 심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인력사무소에 가지 않으면 허탕치기 일쑤다. 일감 없이 일주일 넘게 쉬는 날도 허다하다. 월세 세금 관리비 식비 다 내면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그래서 4만 원이라도 아껴야 했다, 창문이 없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답답함 속에 세상과 단절되게 되더라도. 하루 벌어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이들에게 4만원짜리 창문은 사치였고 결국 이들은 그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죽었다.

4만 원이 목숨값이 된 이런 기막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

사실 이 화재는 다른 모든 재난들이 그렇듯이 이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내가 살았던 고시원처럼 종로 고시원 역시 겨우 침대 하나 들어가는 방이 한 층에 25개씩 붙어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당연히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고시원에 대해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해왔고, 고시원 건물을 임대한 운영자가 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이유는 단 하나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향후 5년간 거주자들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건 때문에 고시원 건물주가 서울시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고 결국 무산되어 이런 대참사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신축 건물이 아니기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지 않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니 자기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짜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4억이나 되는 설치비용을 지원해주었고 건물과 사람 모두 큰 피해 없이 화재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임대료 인상분 욕심에 눈이 멀어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아 7명의 죽음을 가져왔으니 이것이 옳은 행동이었는지를 넘어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은 책임질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말이 아니었다. 건물주가 고시원 원장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분명 건물주에게도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건물 임대계약서에 건물주 갑은 화재 등의 불가항력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주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대신 고시원 원장이 손해를 보상하게 됐다고 한다. 거기에 사건이 발생한 후 여론이 들끓었던 2018년에는 건물주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했지만 정확히 1년 후 2019년 말까지도 도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족들에게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보통 그 눈을 감거나 가리고, 한 손엔 저울을 한 손엔 칼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사회적 지위, 재산, 신분 등의 공정한 판결을 저해하는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겠다는 뜻이고, 저울은 공정한 판결을, 칼은 정의의 집행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다. 동시에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눈을 감지 않거나 칼을 들지 않은 정의의 여신상들이 있지만 이렇게 책임 있는 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는 무력한 법의 여신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저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는지 알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정의의 여신은 온갖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 손에 든 책은 법전이 아니고 장부다. 뇌물을 주신 고마우신 분들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회의 지도층들의 이름을 적어놨다. 칼 따윈 없다. 정의는 없으니.

어느 고시원이 안 그러겠냐마는, 특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고시원은 사회의 약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사망자들, 부상자들 대부분이 50대가 넘는 나이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살아서는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소외되어 스프링클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살았고 창문이 없어 빛을 쬐고 숨을 쉬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 했다. 그리고 죽어서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법적인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하다. 우리의 여신님은 돈과 권력에 눈이 돌아간 채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사망자들의 쓸쓸한 장례식을 보면 더욱 씁쓸해진다. 사망자 일곱 명 중 빈소가 차려진 이는 2명밖에 없었다. 누군가는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누군가는 유족이 시신인수를 포기해서 장례 없이 바로 화장됐다.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그저 비극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다. 비록 법의 여신은 책임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지게 하지는 못 했지만, 변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서울시는 주거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고시원 방마다 의무적으로 창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0년에는 서울 시내 750개 고시원의 78%인 585개의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65개의 고시원에도 2022년 6월 안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대비로 인해 고시원의 화재 비율은 2019년과 비교하여 50% 떨어졌다.

조금이나마 달라진 세상의 모습이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외로이 꺼져 간 목숨들에게 부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접수번호	54	제 목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	----	-----	------------------

군대에서의 일이었다. 육군에 기술지원병으로 자원입대한 나는 제37보병사단 정비대로 자대 배치 받았다. 군생활을 보다 더 보람차게 보내고 싶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번씩 다 가는게 군대라지만 뭐랄까 내 인생의 가장 청춘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를 단순히 그냥 군인이라는 두글자로 포장하듯 사는 게 싫었다. 때마침 사단 사령부에서는 응급구조대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각 휘하부대마다 공문을 붙였다. 응급구조대원이 되려면 응급처치부터 구급법 사용 방법, 전시 상황일 경우를 생각해 방독면을 쓴 채로 응급처치하는 자세 등의 평가에 통과해야 차출될 수 있었다. 군생활 때만이 아니라 배워놓으면 살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응급상황에 유용히 사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나는 곧장 행정실로 달려갔다. 행정정보관님께 말씀드렸다.

“행보관님. 저 응급구조대원 선발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응급구조대원? 박이병아. 그거 쉽지 않을텐데 할 수 있겠나?”

“예. 반드시 해냅니다. 행보관님. 저 박상준입니다. 사나이가 불알 두쪽 차고 태어났는데 무슨 겁이 있겠습니까!”

내 표정을 본 행보관님께서서는 더는 날 말리지 못하셨다. 당시 병사 지원기간이 2주 정도는 남은 상황이라 지원한 이후로부터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체력단련실이 부대 내 마련되어 있었고, 그 바로 앞에는 탁구장도 있어서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2주가 지나고 정비대 자체 테스트에 돌입했다. 구급법 교육을 받고 나면 각종 공인 자격 시험과 팀을 구성해 사단 대표로 제2작전 사령관을 모시고 치루는 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터라 지원자가 꽤나 나왔다. 나는 기본적으로 실전에 강한 타입이다. 국가안보관을 묻는 면접관의 질문부터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구현해냈다. 학교다닐 때부터 청소년적십자의 리더로서 배워두었던 최소한의 응급처치 방법이 효력을 발휘하던 순간이었다. 결과는 내가 속한 정비 6분대의 분대장(병장)과 나 이렇게 2명만이 최종선발 되었다. 더블백을 싸들고 곧장 의무대로 출장을 떠났다.

한달간의 출장 기간동안 행군, 경계 근무 등 각종 훈련 및 일과로 부터 자유였다. 대신 전문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정말 그날로부터 나는 거의 매일마다 연등(취침시간 이후 연장시간)을 진행해 예습과 복습을 진행했다. 지기가 싫었다. 그리고 대회가 열리면 사단대표로 참석해 제2작전사령관 표창을 받아 명예롭게 부대로 금의환향 하고 싶었다. 이 악물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다. 의무대대장님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전문 응급 구조사(군용) 취득 날짜는 1개월 후인 당시 3월 27일로 정해졌다. 시험 전날까지 의무병을 전담으로 삼아 연습 벌레가 되었다.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밝히지 못하지만 계급은 상병이었고 성은 김씨로 김상병님으로 불렸다. 매일같이 달라붙는 통에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나중엔 못당하겠다며 감사하게도 동작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 주셨다. 심폐소생술은 나름 자신 있었지만 종류가 다양한 지혈법에서 좀 헛갈렸다. 특히 그중에서도 수건 또는 보자기 같은 천으로 환자의 지혈을 돕는 가성지혈기 압박법이 이상하리만치 어려웠다. 연등까지 해가며 열심히 하는 통에 체력이 약하셨던 김상병님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오기까지 했다. 시간은 야속할 정도로 빨리 흘러갔다. 순식간에 시험이 3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실기시험 2과목 <심폐소생술>, <지혈법>에 대해서 연습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압박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간접압박법’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국소거양법’에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그리고 실습 시 각 지혈법에 따라 어떤 부목과 구조 용품들을 챙겨야 하는지까지도 함께 떠올렸다. 긴장되는 마음에 밤잠 설치는 이틀이 지나고 시험 당일. 나는 2번 교육생이었다. 실험체가 되어줄 파트너 선정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김상병님을 선택했다. 김상병님께서 걸어 나오시는데 안색이 너무 안좋아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대로 감전된 것처럼 쓰러졌다. 급박하게 일어난 말그대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모두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했지만 나는 배운대로 몸을 먼저 움직였다.

“자. 거기 앉아계신 감독관님께서서는 지금 의무대 본과로 연락을 취해주시고, 지금부터 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그 옆에 앉으신 감독관님께서서는 119에 연락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그날 기적처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119구급대와 의무관이 올 때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며 구령을 넣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도 개방! 호흡 확인!!”

그 사이에 의무관과 119 구급대원들이 동시에 도착했다. 다행히 사단 직할 의무대였던 통에 연락 몇통으로 위병소를 신속히 통과해 119구급대가 들어올 수 있었다. 역시 전문가들의 손길은 달랐다. 인공호흡기를 설치하고 기계로 의식을 살린 후 들것에 눕히고 병상으로 이동시켜 순식간에 김상병의 호흡이 다시금 정상

으로 돌아오게 했다. 만약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의 4~5분에서 10분정도의 황금시간대를 놓쳤다면 김상병님의 상태는 사망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천만다행이었다. 사태가 수습되고 다시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파트너를 고르던 중에 감독관들이 나를 불렀다.

“박 이병. 대단하구만. 감동이다. 박이병이 아니었더라면 김상병은 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시험은 좀전의 그 응급상황시의 행동으로 대체하고 감독관 만장일치로 자네에게 합격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특별히 자네를 올 여름에 실시할 응급처치대회에 정비대 대표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대단하다. 박수를 쳐주고 싶다.”

“박수라뇨.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꼭 더 연습해서 응급구조대원으로서 사단을 빛내는 장병이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은 본의 아니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내게 선물했다. 어쩌면 재난과 재해 상황에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구조의 기본을 지키는 걸지도 모른다. 평소에 방법을 제대로 익혀놓고 상황 발생이 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뛰어들어 조치를 하는 것 말이다. 흔히 구급대가 오기까지의 5분~10분 정도를 인명구조 황금시간이라고 부른다. 황금 시간에 황금 같은 행동력을 겸비한다면 보다 더 상황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지 않을까? 벌써 군에서 전역한지 8~9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어제 일처럼 그때의 일이 생생히 기억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앞으로도 그때처럼 언제라도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뛰어들 수 있는 자체적 소방대원이 될 것이다. 사람이 미래라는 명언처럼 생명이 곧 대한민국 인류의 미래다. 그 미래를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소원할 따름이다.

접수번호	86	제 목	화마가 지나간 자리
------	----	-----	------------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친정에 왔다. 저녁밥을 드시고 앉은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던 친정어머니가 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신다. 멀리서 내가 왔다는 전화를 받고 여동생이 찾아온 것이다. 남편도 모처럼 친정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며 친구를 만나러 나갔기에 세 모녀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화제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제삿날에 어머니를 따라 큰집에 갔던 이야기로 이어졌다.

친정어머니는 며칠 전 할아버지 기일에 부산에 다녀오셨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할아버지 제사를 장손인 부산 오빠 집에서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친정 동네는 읍내에서 사·오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다. 마을 길은 손수레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외길이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신작로는 아랫마을을 지나야했다. 그 길도 그나마 마을 사람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다진 길이었다.

스무 호 남짓 되는 마을은 작은 도랑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었고 도랑 위쪽 마을 이름은 ‘상각단’ 이라고 불리었다. 초등학교 다닐 무렵, 어느 해 겨울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다.

“엄마, 상각단에 불났다.” 라고 하며 여동생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대청마루로 뛰어 올라왔다. 어머니와 나는 가까운 친척들과 큰집에 모여 종일 제사음식을 만들고 집에 돌아와 쉬는 중이었다. 화급하게 방문을 열어젖히니 상각단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경황 중에도 두꺼비집을 내리고 양동이를 들고 나서는 어머니를 따라 우리도 뛰었다. 뛰다가 뒤를 돌아보니 양동이를 손에 든 동네 사람들이 논밭을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었다.

상각단에 유일하게 우물이 있던 내 친구 돌이네 집은 이미 푸른 용의 입에서 뿜어 나오는 것 같은 시뻘건 불길의 거세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동 빨래터였던 웅덩이까지 인간 띠를 만들어 물을 퍼 날랐다. 나와 동생처럼 초등학교들도 어른들 틈에 끼어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거들었다.

근처 학교에서 갖고 왔는지, 학년과 반 표시가 되어있는 양동이를 들고 읍내 사람들도 불을 끄러 왔지만, 웅덩이 물이 바닥이 나도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벌정계 이글거리는 불꽃이 때마침 불어닥친 강풍으로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상각단 마을 전체를 태우며 하늘 높이 치솟았다. 추수가 끝나고 영기성기 쌓아놓은 마른풀들과 장작들이 즐비했으니 오죽이나 잘 탔을까. 길이 조붓해 들어오지 못하는 소방차는 아랫마을 입구에 멈춰 서서 애꿎은 사이렌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대며 애를 태웠다.

밤이 깊어지면서 초가집 열두 채를 집어삼킨 바람도 잦아들었다. 그해 순식간에 살던 집을 잃은 사람들은 이웃집이나 친척 집에 얹혀 추운 겨울을 났다. 봄이 왔으나 마을에 다시 집을 지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사했다.

화재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상각단 마을 부지에 공장이 들어섰는데 두 차례나 불이 났다. 큰 불로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땅값이 싼 맛에 들어선 공장도 부도가 났는지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았다.

초저녁잠이 많은 어머니가 잠들자 가까운 거리에 사는 동생도 집에 가서 자야 겠다며 일어섰다. 옛날에 길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마을 길은 어느새 사 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나는 동생이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길을 바라보다가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리며 대청마루에 섰다.

마루에 서서 서쪽을 바라보았다. 불나기 전에는 이곳에 서면 돌이네 집 지붕이 보였다. 지붕 아래에는 동네 조무래기들이 날이 저물도록 고무줄 넘기와 공기놀이 할 하던 돌이네 바깥마당이 있었다. 눈만 뜨면 붙어 다니던 돌이와 나는 초등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이웃집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돌이는 악몽에 시달려 잠들지 못하며 말라깽이가 되었다. 돌이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부산 어딘가로 이사 간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하긴, 그동안 흐른 세월이 얼마인가. 돌이도 나처럼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은 마을이 화마에 사라져 자취를 감춘 그날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토록 강렬하게 남았던 화재 사건도 세월과 함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연일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도 방심하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닥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겨울, 안방에 들어앉아 써지지 않는 글을 붙잡고 끙끙대고 있는데 창밖으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어디에 불이 났나 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펜을 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잠시 멈춘 사이 이번에는 우리 집 초인종이 쉬지 않고 울렸다.

“누구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안방 문을 연 순간 거실을 짝 채운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았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사골 냄비가 새까맣게 타들어 가며 시꺼먼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마치, 50여 년 전 발생했던 상각단 불길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간신히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젖혔다. 정신을 가다듬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경비아저씨와 이웃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 곧이어 소방관 아저씨도 들이닥쳤다. 도대체 무얼 하느라고 초인종이 그렇게 울려도 모르느냐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한 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불로 번질 뻔했다며 소방관 아저씨는 오히려 녀 나간 듯 멍하니 앉아있는 나를 위로했다.

뉴스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사건이 내 집에서 일어나고 나서 나는 당장 가스 차단기를 설치했다. 어머니 집에는 물론이고 만나는 지인마다 가스차단기를 달도록 설득했다.

일상 생활에 불이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불은 깜박하고 방심하는 순간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불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나는 종종 가스레인지에 보리차를 올려두고 탄질을 했으니...

‘삐익, 삐익’ 오늘도 가스차단기의 경고음을 들으며 문득, 돌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사위가 늦는가 보다. 들어와 먼저 자거라” 라고 하시며 경고음 소리에 잠이 달아난 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걱정하신다. 어느새 노년에 들어서며 건망증이 심해진 딸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눈물겹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이 더디어 가뜩이나 속이 뒤숭숭한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며칠 사이에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오늘은 제발 우리 지역에서도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었던 긴 하루의 끝을 접는다.

접수번호	91	제 목	그 불을 기억해
------	----	-----	----------

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물이 나오지 않자 출근에 대한 위기감이 몰려왔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는데, 무슨 일일까?

이상한 기분에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순간, 빨간 불빛이 번쩍이는 소방차 여러 대가 보였다. 소방관들이 주차장 입구 쪽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앉아 있거나 쓰러지듯 누워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알고 보니, 새벽에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안쪽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것이다. 다행히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진화작업을 한 덕분에 불은 지상으로 번지지 않는 않았다. 뉴스에서만 보던 화재가 내가 사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순간 아찔했다.

그날의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은 초등학교 시절, 불과의 사투를 벌였던 현장으로 나를 이끌었다.

1970년대 말, 산을 병풍처럼 둘러싼 농촌에 자리한 작은 시골 학교에 다녔다. 이웃 마을에 있는 학교는 왕복 십 리 길이었다. 4학년 봄방학을 며칠 앞두고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코끝이 빨갱도록 놀았다. 2월의 짧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우리는 바삐 걸음을 재촉하며 마을과 들길을 지나 고갯마루가 있는 산길로 향했다.

2월이라 채소밭에 나뉘구는 배추와 무잎들이 바싹 말라 바스락거렸다. 근처 나뭇잎이 떨어져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다가 한곳에 쌓여있기도 했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걸던 친구가 갑자기

“야! 우리 모닥불 피워볼까? 날이 추우니 잠깐 손을 녹이고 가자.” 라고 했다. 우리는 눈빛으로 의기투합했다. 마른 풀잎과 솔잎, 자잘한 나뭇가지를 부지런히 채소밭 한 군데로 모았다. 친구는 씩 웃으며 가방에서 성냥갑을 꺼내 들었다. 친구가 성냥개비 한 개를 성냥갑 모서리에 힘껏 내리치자. 스프르 불꽃이 일었다. 마른 풀잎에 금방 불이 붙었다. 순간, 우리 둘은 묘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조금은 불안하지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우쭐함이었다. 고사리 같은 손과 발로 총총 부지런히 마른 잎들을 주워 모아 불덩이에 던져주었다. 모닥불은 마른 잎들을 맛있게 냠냠 받아먹을 때마다 불꽃이 커졌다. 기대했던 따스한 온기가 손과 얼굴을 타고 온몸에 퍼지자, 불을 피우길 잘했다는 뿌듯함에 저절로 신이 났다.

갑자기 찬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기 시작했다. 불꽃은 이리저리 낮게 드리우다가 마른 잎을 따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내 발독 길 바깥 옆에 붙은 산자락까지 번지려고 했다. 순간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너희들이 불장난하다가 큰불이 나면, 너희 아버지까지 경찰서로 끌려갈 수 있

으니 절대 불은 피워서 안 된다” 라는 담임 선생님의 엄한 말씀이 떠올랐다. 두 손이 줄에 묶여 끌려가는 아버지의 모습도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하자, 나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당황하고 있는 친구에게 반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네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모닥불 근처에 두었던 내 책가방을 집어 들고 재빨리 도망가려고 했다. 그 순간 친구의 불안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러는 사이 불은 땅따먹기를 하듯 점점 영역을 넓혀갔다. 산으로 퍼지면 우리는 끝장이다.

무서움에 도망가려는 내 두 다리는 단단한 무엇인가에 묶인 양,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를 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며불며 책가방으로 있는 힘껏 불꽃들을 내리쳤다. 자꾸만 자꾸만 일어서는 불꽃을 밟고 또 밟았다. ‘불아, 제발 일어서지 말아다오. 제발!’

한참을 불꽃과 미친 듯이 실랑이를 했다. 다행히 불꽃은 숨을 고르며 연기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제야 친구와 나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설날에 설빔으로 사주신 보라색 코르덴 바지에는 구멍이 송송 뚫렸다. 온 힘을 다해서 내리쳤던 책가방과 신고 있던 운동화는 까맣게 그을렸다.

친구 머리카락은 그슬려 마른 갈땃잎처럼 도르르 말리고 유난히 하얗던 얼굴도 까만 그을음이 덕지덕지했다. 그 순간, 친구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조금 전까지의 불안감이 안도감으로 변해 나는 목이 터져라. 울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이제 내 바지랑 가방은 어떻게 해.” 친구의 웃음소리에 섞인 열 한 살의 절규는 2월의 바람을 타고 연기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날의 기억으로 불을 대할 때는 늘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던 나는 자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어느 해에 4학년 담임을 맡았었다. ‘학부모 초청 수업’에 소방관이신 학부모님이 흔쾌히 응해 주셨다. 소방관이 하는 일, 지켜야 할 소방안전 수칙도 알려 주셨다. 직접 소화기를 갖고 오셔서 소화기에 대한 설명과 소화기 사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친구 아버지께서 멋진 소방관 복장을 하시고 학교에 다녀가신 후로 여러 아이의 꿈이 소방관으로 바뀌었다.

9년 전 일산 황룡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였다. 12월 말에 문구류 제조공장에서 큰불이 났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셨던 소방관 동료 두 명을 먼저 탈출시키셨던 김형성 소방장님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순직 소식을 접하고 나서,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일산소방서에 게시는 소방관 아저씨들께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의견을 모았다.

재난 상황에 늘 먼저 달려오셔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소방관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과 소방관님의 순직 소식에 대한 위로를 편지에 눌러 담았다. 돌아가

신 소방관님에 대한 슬픔이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되니 안타까움은 더했다.

기대하지 않았던 답장이 며칠 후에 도착했다. 동료의 죽음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아이들의 손편지를 받아보시고 큰 위로와 힘이 되셨다며 오히려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오신 것이다. 손으로 꼭꼭 눌러쓰셨던 소방관님의 편지를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목이 메어 잠시 읽기를 멈췄던 기억이 생생하다. “여러분의 손편지를 읽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김형성 소방장님의 몫까지 더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비보(悲報)는 이천 구광 덕평물류 센터의 화재 소식으로 또 이어졌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들과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신 고(故) 김동식 소방경님.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소방관님의 희생으로 일상의 삶을 안온하게 누리고 있다. 그분들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셨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돌아오지 못하신 수많은 소방관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재난 현장에서 더 안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겨진 우리들의 과제이다.

저 멀리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커졌다가 멀리 사라진다.

어린 시절, 해가 지는 산자락에서 경험했던 그 불을 나는 기억한다.

접수번호	124	제 목	젓빛 꽃자리
------	-----	-----	--------

불은 씨로 자라나는 생물이다. 불씨는 먹잇감에 따라 산허리를 살라 먹는가 하면 이 생물이 토해낸 젓빛 잔해는 새로운 싹을 틔우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런 불의 양면성을 안고 살아가는가. 내게 와서 모든 것을 살라버린 불씨도 처음은 하찮았을 것이다.

전류에게 오래된 전깃줄은 비좁은 터널이었다. 터널을 이탈한 전류가 마른 벽지에 불씨를 낳았고, 불씨는 벽지를 불쏘시개로 몸집을 키웠다. 녀석은 회색 갈기를 뺨으며 응집세트를 야금야금 살라 먹더니 사물놀이 북 장고에 올라타 기세가 올랐고, 가전제품에서는 환희의 폭죽을 터트렸다. 나름의 사연으로 내게 온 소중한 장서와 애장품들은 주인 없는 거실에서 불지옥에 몸서리쳤으리라. 15년을 꼼꼼하게 챙긴 어설픈 농가일지 마지막 페이지는 쓰지도 못하고 젓빛으로 사라졌다.

애초에 대숲에 유폐되었던 집 마당에는 대나무가 빼곡했다. 그래도 앞으로 탁 트인 전망과 마을과의 적당한 거리, 대문 옆자리의 큼직한 멸구슬나무 등 그 운치가 나를 사로잡았다. 대숲에 둘러싸인 집은 대나무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었다. 주인을 사람으로 바꾸는 쉽지 않은 작업을 시작했다. 배경이 푸른 대숲이니 지붕은 빨간색 기와를 얹고 흙벽에도 흰가루를 발랐다. 이 강렬한 보색대비는 마을 분위기까지 살려내었다. 다음 일은 대나무 제거였다. 대나무가 사는 집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바꿔놓아야 했다. 대순이 불쑥불쑥 솟는 마당에 자갈을 붓고, 소금과 제초제를 뿌리고. 대 뿌리를 뽑고, 돌가루를 뿌리면서도 끝내 시멘트는 들이붓진 않았다. 마당이 콘크리트가 되면 서울과 다를 게 무엇이겠냐 싶어서였다. 집은 다듬어지면서 점차 인간의 향기가 배어들었다. 어제 아침에도 돌담 밑에서 대 다섯 다발을 잘라 내버렸다. 자연석 모자이크처럼 예쁜 돌담이 드리나면 마당이 마당다워지고 집 꼴이 살아났다. 서울서 천 리 길을 두 달 멀다 하고 달려오는 것도 집을 살리기 위해서였으니, 집 또한 사람의 기척이 없으면 저절로 죽어가는 생물이었다. 서울에 있으면서 내려오라 했고, 문밖에 나설 땐 떠나는 발길을 잡는, 참 정 많은 집이었다.

그날, 목포의 지인으로부터 점심을 같이하자는 연락이 왔다. 우리 부부는 오전 11시에 목포로 출발했고, 돌아와서 다음 날은 떠날 생각으로 몸만 빠져나왔다. 30분 정도 지나 목포에 접어들 무렵 휴대전화가 왔다.

“느그 집에 불났다. 빨리 와라, 어디냐?”

친척의 다급했던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머물러 있다. 급히 차를 돌렸다. 목포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정을 알릴 겨를도 없었다. 설마 연기 조금 나겠지. 그러나 얼마 뒤 휴대전화에서 들린 마을 이장의 허둥대는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이 전소全燒했다고. 마른 대나무는 화력이 강하니 집을 둘러싼 대숲이 마르면서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산불로 이어질 것이다.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단단히 불단속을 하고 나가는데 웬일일까. 그때부터 나는 내가 아니었다. 집이

야 어차피 탔으니까 운전 조심하라는 이장의 당부는 오히려 가속 페달에 힘을 보탤다. 전소라는 말은 다른 해석을 용납하지 않았다. 전소되었다면 큰 산불로 번졌다는 말도 되었다. 조마조마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멀구슬나무 옆으로 푸른 대숲에 싸인 빨간 기와집이 보여야 했다. 잿빛 연기가 운무처럼 대숲을 싸돌고 있었다. 대숲까지는 불이 번지지 않은 듯 보여 한 시름은 놓았다.

마을 어귀부터 빨간 차와 소방대원들이 북적거렸고 동네가 발각 뒤집혀 어수선했다. 내 집 언저리에서 검은 연기가 머리를 풀고 얼쩡거렸다. 회관 앞에 차를 댄 뒤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 올랐다. 분주한 소방대원들 너머로 까맣게 아가리만 남은 허깨비가 붉은 개와 지붕을 떠받치고 뺄쫘하게 서 있었다. 배반감을 안겨주던 그것은 이미 내 집이 아니었다. 나이 든 아짐들은 처연한 눈빛으로 ‘시상에 어짜끄나!’를 연발했다.

늦은 저녁이라도 대숲에 전등을 밝히면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했다. 농사도 모르는 도시 촌뜨기라도 마을 사람들은 늘 반겨 맞았다. 나는 사물놀이 북을 둥둥둥 쳐대서 내가 왔음을 알리기도 했다. 장마철이라 고구마 몇 고랑 심어 놓은 거 잘 자라나 불 겹 내려온 길이었다. 이십 대 초반의 자식 같은 소방대원들이 36도 땀별 아래서 불과 싸우고 있었다. 이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았다. 누구한테도 척진 일 없고, 나 마다한 사람 없었으니 화재 원인 규명이나 수사는 필요 없다며 땀 흘리는 소방대원들을 다독였다. 오래된 전선을 미리 살피지 못한 내 잘못이니 누전으로 종결하자고. 정신 내놓고 뛰다 저녁이 다 되어 서야 문득 내 몸을 널 집이 없는 걸 알았다.

친척 집에서 맞는 다음날, 잠을 잤는지 모르게 눈을 뜨니 아침은 여전하나 눈앞에 대숲이 보이지 않는다. 마당에 나와 눈길을 뒷산으로 보낸다. 내 집터를 품은 산어귀에 안개가 낮게 드리웠다. 혹은 아직도 못다 살라 서성거리는 연기 꼬리는 아닌지... 모든 것이 재앙이 되어버린 개운찮은 개운함이 인다. 이 개운함은 어디서 비롯하는지. 어차피 내게 올 재앙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멀쩡하니!

집을 품었던 대숲에 빨간 기와집 대신 어두운 공간만 켜있다. 그래도 내 집은 대숲에 불길을 보내지 않았다. 불더미를 집 안에 품고, 불어리를 만들어 소방대원들을 때까지 안으로만 온전히 태워 가면서 장렬하게 버텨내었다. 대숲은 집을 둘러싼 앞부분만 누렇게 변했을 뿐 거짓말처럼 멀쩡했다. 내 집은 그렇게 죽어갔다. 대숲이 움푹 패 잔해들 가라앉은 곳은 대숲을 삼켜 괴물이 되려는 녀석을 품어 장렬하게 쓰러진 순교의 터였다. 15년간 내가 살려낸 집은 그렇게 내게 보답했다.

동네 아낙들은 뺄쫘하게 날름거리는 불 갈기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단다. 다행히 우리 부부는 불타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다. 아까운 물건 건져보겠다고 그 매서운 불길에 뛰어들 수도 있고, 정든 집 타들어 가는 것을 눈앞에서 뻘히 보았다면 가슴 속에서도 불을 사위었을 것이다. 나만큼이나 맘 졸이고 있을 목포의 지인에게

전깃줄이 낡아 어차피 날 불이었는데, 덕분에 불을 보지 않았으니 도리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이 터는 초록의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차피 내려놓아야 할 내 것이었다면 조금 일찍 놓아버린 것. 하지만 빈 가슴에 허허로움만 차 들어오는 아침이다.

옆 지기를 잃어버려 초췌해진 멸구슬나무를 올려다본다. 집과 함께 재가 되어버린 내 인연의 표상들, 내 삶의 열개들이 사라져가는 연기 꼬리를 따라 하나둘 정리되고 있다. 이런 마음자리의 리셋reset이 개운함의 정체였을까? 집터는 다시 꽃자리가 될 터이다. 새로운 꽃자리를 위해 비워냄은 자연의 자연스러운 순환 질서이다. 집은 나를 살려내려고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텅 빈 집터에 올라 막걸리라도 한잔 올려야 하겠다. 밀려든 허허로움은 잿빛 꽃자리에 묻어두련다.

접수번호	131	제 목	내 삶을 구한 작은 동그라미
------	-----	-----	-----------------

예고가 없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 전조증상이 있다면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뭔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예고도, 준비 신호도 없이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 되는 사고는 큰 불행을 부른다.

내 인생에도 그런 불행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불길이 사르르륵 소리를 내며 다가올 때였다. 도망을 쳐야 한다거나, 위력이 약할 때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 머릿속이 온통 검은색으로 정지된 것 같았다.

시골의 어촌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우리 집은 온 동네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다. 엄마는 마당에서 그물을 꿰매는 일을 주로 하셨다. 바다에서 쓰는 커다란 그물을 수선하려면 화롯불이 꼭 필요했다.

마당에 불을 피운 채, 그물을 깎다가도 저녁 시간이 되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식사 준비를 하시곤 했다. 뇌에 물이 차는 바람에 팔다리가 뒤틀린 장애인으로 태어난 나는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엄마를 전혀 도울 수 없는 처지라 그저 평상에 엎드려 엄마가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도 엄마가 옆집 일을 도우러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였다. 화롯불이 바람을 타고 집에 옮겨붙었다. 내가 불을 감지했을때는 이미 내 눈앞에 와 있었다.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코앞에 닥쳐온 불길에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 장면을 끝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망부석이 된 나는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온 몸에 긴 뱀을 휘감은 듯한 흉터가 생겼다.

화재를 계기로 엄마는 내 팔다리를 수술시키기로 결심하셨다. 만약 제대로 걸을 수 있었다면 도망이라도 쳤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화상 치료를 받은 대학병원에서 다시 큰 수술을 받았다.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 끝에 마침내 나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팔을 풍차처럼 휘두르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대는 모양새였지만 보행의 자유는 엄청난 것이었다. 집 안에만 갇혀 살던 나는 보행의 자유에 힘입어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그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미래를 꿈꿀 수도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대도시의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난생 처음으로 도시에서 살아보게 된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대학 생활 동안 지낼 원룸을 보러 다녔다.

여러 방을 돌아본 후, 엄마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던 신축 건물을 고르셨다. 다른 건 몰라도 불은 불길이 크게 번지기 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었다. 이제 걸을 수 있으니 불이 났다는 걸 일찍 인지만 해

도 제대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

그렇게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도시 생활도, 학업도 낯설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꿈을 위해 달려간다고 생각하며 견뎠다. 집 안에 갇혀 누가 업어주지 않으면 외출도 못하던 때를 생각하면 무엇이든 이겨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다. 밤늦게까지 구인공고를 보다가 무뎠다. 잠이 들었을까. 어디선가 경보음과 함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화재경보였다. 소리의 진원지는 옆집이었다.

나는 119에 신고를 한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수건을 적셔 입에 물고 다시 복도로 나왔다. 물에 적셔진 천을 입에 물고 자세를 낮추면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수건이 없다면, 양말이라도 벗어 입에 물면 침이 고여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불길에 휩싸여 큰 화상을 입었을 때, 퇴원 후 매일 가족들과 화재 대피 모의 훈련을 했다. 그때 몸에 배도록 수없이 연습한 덕분인지 나는 차분하게 복도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대피 요령을 알려줄 수 있었다.

모두 입에 천을 하나씩 물고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자, 소방차가 달려왔다. 다행히 큰 불이 아니어서 금방 진압할 수 있었다.

화재의 원인은 담배였다. 옆집에서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화장실에서 여러 갑의 담배에 한꺼번에 불을 붙였다고 했다. 윗집으로 담배 연기가 타고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담배 다발을 들고 있다가 잠깐 바닥에 놔둔 사이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시끄러운 소음에 대항하여 보복을 하려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사건이 일어날 뻔 했다. 늦은 시간이라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면 인명 피해가 컸을 것이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나도 모르게 큰 한숨이 터져 나왔다.

우리 건물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 천장 위에 붙어 있던 작은 동그라미가 불이 났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불길이 거세지기 전에 감지하고, 경보를 해준 덕분에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화재경보기 전도사가 되었다. 사람은 불길을 예상하지도, 감지하지도 못하지만 화재경보기는 할 수 있다.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화재경보기라는 내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한 번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화재라는 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불시에 번개처럼 내리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덕분에 화재 경보기가 있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인생에 두 번째로 닦친 불길로부터 내 삶을 구할

수 있었다.

불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구성요소다. 누구도 불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화재경보기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대책이다. 천장에 작은 동그라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화재보다 한발 앞설 수 있다.

우리 집 천장에는 내 생명을 구해준 작은 동그라미가 여전히 붉은빛을 깜빡깜빡거리며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언제나 작은 동그라미와 함께 할 것이다.

접수번호	132	제 목	30초만 늦었어도
------	-----	-----	-----------

2008년 3월 31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다. 30초 사이에 우리 가족이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운명이 뒤바뀔 뻔했다. 화재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악몽에 시달렸다.

2000년 3월에 신축한 144평 공장건물은 샌드위치패널건물이고 난연 패널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샌드위치패널공장건물 안 사택에 살았다. 농산물전처리 식품제조공장이다 보니 물을 많이 사용했다. 정선한 농산물을 물로 세척하여 절단 가공하여 20kg비닐 포장하여 플라스틱 BOX에 담아 이백여 개를 상자 하거나 냉장창고에 입고하는 등. 3D업종이라 내국인은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이직했다. 차선책으로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을 지원받았다. 연수생들은 중식을 제외한 조식과 석식은 식당에서 LPG가스를 이용하여 조리했다. 식당 옆에는 사무실이 있고 식당을 통해 사택으로 들어가야 했으므로 LPG가스 중간밸브가 잠겼는지 레버가 열려 있는가, 오며가며 수시로 체크했다.

2006년 초 4개월 동안 15킬로 감량에 성공했다. 그 후 위염이 재발하여 속이 비면 통증이 심했다. 빈속을 채우다 보니 7킬로가 늘었다. 예전 모습으로 복귀하기 위해 매일 저녁 러닝머신 걷기운동 했다. 화재가 난 날은 저녁식사 후 설거지도 하지 않고 초저녁잠에 빠졌다. 밤 10시50분 경 일어나서 러닝머신 걷기운동하면서 중2아들과 EBS 수학강의를 시청하느라 볼륨을 높였다. 11시경 ‘쿵’ 소리와 함께 가로등이 꺼졌다, 잠시 후 번갯불처럼 번쩍하며 불이 켜졌다. 수차례 꺼짐과 켜짐을 반복했다.

가로등안전기가 나갈 때면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다. 가로등 스위치를 곧바로 내리러 갔다면 뒤뜰에 불기둥이 솟는 광경을 목격했을 터인데, 운명의 장난인가, 운동을 마치고 나가려고 생각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로 남았다. 일찍 잠자리에 든 남편이 가로등 소리와 뒤뜰에서 들린 ‘핑’ 하는 굉음을 무의식중에 듣고 놀라서 잠이 깼다. 거실로 나와 시계를 보고 운동하는 날 힐끗 쳐다보더니, 사무실로 가셨다.

“물탱크, 공장 뒤 물탱크에 불났어, 불?…….”

불이 났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설마 불이 났을까?’ 날 놀리느라 거짓말 하는 줄 알았다. 남편은 식당 문을 열었을 때 뒤뜰 물탱크에서 표호의 불기둥을 보았다. 물탱크와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에는 LPG 가스통이 3개 놓여있었다.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가스가 폭발하면 우리공장 뿐 아니라 일대가 불바다가 되는 건 시간문제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을 본 남편은 너무 놀라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가족의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작은아이를 깨워 밖으로 데

려갔다. 거실 창문을 열어젖히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 열떨결에 러닝머신 스위치를 정지시키고 TV볼륨을 줄이고 멍 때리고 서 있는데, 뒤뜰에 불이 엄청 크게 났으니 빨리 창문으로 탈출해야한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 ‘윙윙’ 반복재생 되었다. 허둥지둥 작은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빈 방이다. 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온통 하얗다. 멍한 상태로 습관처럼 운동복을 벗고 긴 바지를 입었다. 급박한 순간에 작은아이와 내 웃옷, 가방을 챙겨 나오다, 친정 할머니 말씀을 떠올렸다. ‘큰 일이 나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니 침착해야한다!’ 전선을 타고 불이 옮겨 붙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전기선을 뽑았다. 창문을 넘어가는데 러닝머신 접지선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마음은 급한데 행동이 굼뎠다. 겨우 창문을 넘어간 내게. 남편이 말했다.

“지나가는 택시기사님이 우리 집 뒤에서 불길에 쫓겨 구르고 있다고 119에 화재신고 하고 대문까지 와서 소리를 질러서, 숙소에 있던 직원들이 뒤뜰로 불을 끄러 갔어?”

뒤뜰에는 전기모터로 지하수를 뿜어 올리면 또 다른 모터가 물탱크에 물을 밀어준다. 물탱크에 모인 물은 작업장으로 달려간다. 모터에 쌓인 먼지로 합선되어 불이 번쩍? 모터를 싸준 보온덮개에 불씨가 떨어져서 불꽃이 났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불꽃을 데리고 PV관을 타고 1톤짜리 쌍둥이 물탱크를 감싼 보온덮개에 미친 듯이 불이 번졌다. FRP소재 물탱크에 불이 옮기면서 엄청난 크기의 불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우리공장과 300미터 떨어진 언덕을 내려오던 택시기사님이 불기둥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식품공장은 물이 생명이다. 물탱크가 열면 작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보온덮개를 감싼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자던 화마를 불러낸 주범이다.

물탱크 두 개가 화마의 위력에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물탱크 안에 갇힌 공기의 압력으로 ‘핑, 핑’ 엄청난 괴성과 굉음을 지르면서 폭발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은 화마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여름철 한낮의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거운 불기둥을 내뿜었다. 물탱크와 물탱크지붕을 와작와작 씹으면서 성이 차지 않는지 본채 건물을 향해 돌진했다. 철판과 철판 사이를 중횡무진 롤러코스트 타듯이 스티로폼을 찾아다녔다. 긴박한 순간을 가로등이 귀땀해 주었지만 알지 못했다. 개코라고 자랑하는 내 코도 무용지물이다. ‘화재라고 설마?’ 화재는 그저 남의 이야기인줄 알았다. 우린 화마에 무방비였고 무장해제 상태였다. 운명의 장난인가, 하늘 도화지에 예쁜 저녁노을을 그리는 아름다운 언덕을 늦은 밤 내려오던 택시기사님은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였다.

불길이 개망나니처럼 롤러코스트를 탈 때, 직원들은 호스로 물을 뿜었지만 중과부적이고, 144명을 삼킬 기세로 덤볐다. 천만다행으로 직원들은 화재현장에 도착하자마자 LPG가스통 3개를 떼어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니 망정이지, 어쩔 뻔 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건 말할 것도 없다. 굵은 호스는 본채로 옮겨간 불의 행

적을 따라 물을 뿜었다. 일부는 뒤편 화장실에서 물을 길어다 옹벽 위에 올라가 물탱크와 물탱크지붕에 물을 뿜었다. 본체에 불이 옮겨 붙은 시점에 소방차 세대가 도착하였고, 미처서 발광하는 화마의 목덜미를 덤석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본채건물 식당 안이 연기가 가득해지자 화재경보기가 목청껏 울었다. 소방호스는 본채 샌드위치패널 속으로 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물을 퍼 부으며 달려갔다. 화마는 이중유리를 태우고 패널 걸면을 뜨겁게 달구면서 거침없이 돌진했다. 내가 뒤뜰에 갔을 때, 물탱크에 붙은 불이 거머리처럼 물탱크 지붕을 물어뜯으며 활활 타올랐다. 본채 건물로 옮겨간 불덩이는 꿈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 소방차 3대가 쉬지 않고 물을 뿜었다. 본채 건물에 진입한 화마는 유리창을 무사통과하고 패널 걸면 철관을 뚫고 스티로폼을 삼키며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소방호스가 화마의 숨통을 조였다. 큰불은 사그라지고 폐허의 잔해는 전쟁터를 방불했다. 물탱크 지붕까지 삼킨 화마는 파란 불뚱을 날리며 대항했다.

소방대 현장감독이신 과장님 말씀이 **30초만 늦었어도?** 샌드위치 패널 공장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거라고 하셨다. 만약 그랬더라면? 공장주변 언덕과 잡초가 우거진 밭에도 불이 붙었을 터인데 불길을 잡은 것이 천운이라고 하셨다. **늦게 뒤통을 치는다고 하더니** 아비규환 생지옥, 꿈이 아닌 화재현장에서 미쳐 날뛰는 화마를 보았다.

물탱크 두 개와 지붕을 몽땅 태우고 물기둥에 질식한 화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큰 불은 잡혔지만 소방 호스는 여전히 물을 내뿜었다. 물탱크에서 뛰어내린 파란 불뚱이 옹벽 위에 물구나무서기 하며 날 보고 조롱하였다.

“그러게 초저녁에 한 번 나와서 살펴보지, 누가 일찍 잠을 자랬어? 바보처럼.”

매일 밤 11시면 사무실의 컴퓨터 전원을 끄고 뒤뜰 가로등을 켜고 쪽문을 열고 나가 냉장고 실외기와 화장실 안을 살핀 후 우물모터를 확인한다. 아침이면 밥통 취사버튼을 누르고 마당의 가로등과 뒤뜰 가로등스위치를 내리고 쪽문으로 나가 냉장고 실외기와 우물모터에서 열이 나는지 매일 체크한다. 한 번의 방심이 화마를 불러들였다. 밭을 동동거리며 시커먼 화재현장에서 마지막 잔불을 진압하는 소방대원님들의 눈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화재현장에 몸을 던진 소방대원님과 직원들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30초만 늦게 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달 밝은 밤이면 뒤뜰에 놀러 온 하얀 달빛을 보고 불이 난 줄 알고 놀라서 허둥댔다. 샌드위치패널 철관 사이 스티로폼을 롤러코스트 타듯 종횡무진 하던 무서운 불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13년이 지났어도 화재가 나는 꿈을 아직도 가끔씩 꾸는다.

2008년 5월. 화재 후 시커멓게 타서 속빈 패널 사이에 우레탄 폼을 부어넣었더니

끝없이 들어갔다. 식당 벽 한쪽의 스티로폼이 거의 소실되었다. 그만큼 긴박한 순간에 불길을 잡은 셈이다. 30초 짧은 순간에 생사의 길에서 우리 가족은 살아났다.

언젠가 너머 동네에 샌드위치패널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119에 화재신고 했다. 불길과 연기를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숨이 막힌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 무소불위의 전사인 화마.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든 덕분에 물탱크는 앞마당에 다시 지었지만 화재 후 20일을 불길 속을 헤맸다. 꿈속에서 불이 난 꿈을 수시로 꺾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웠다. 휘영청 아름다운 밝은 달빛만 봐도 화재가 난 줄로 알고 수없이 놀라서 허둥댔다.

화재 후 남편은 건망증이 심한 내게 내린 처방! 주방문에 대문짝만하게 ‘불조심’을 써 붙였다. 그 후 주방을 나가기 전, 한 번 더 주방을 둘러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지금은 불이 난 공장이 아닌 빌라에 살지만 외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방을 둘러본다. 도시가스지만 중간 밸브위에 잠금장치를 달아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진다.

TV뉴스에서 물류센터 지하 냉장창고 화재가 난 현장을 보았다. 물탱크 안에 갇힌 공기의 압력과 전기용접기에서 나온 불뿜이 접촉하면서 폭발하여 큰 화재가 나서 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화마는 귀한 생명은 물론 재화도 한순간에 앗아간다.

살고 있는 집 천정을 보니 스프링클러가 곳곳에 붙어있어 너무 감사한다. 어디에 선가 탄 냄새만 나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버릇이 있다. 우리 집은 이상이 없는데 윗집에서 생선을 굽느라 탄 냄새가 내려오면 코가 반응한다. 13년 전 너무 놀랐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말이다.

이번 쿠팡물류창고 화재에 간히신 살신성인의 김동식 구조대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정리해보았다. 집을 지을 때나 건물을 지을 때, 내부를 설계할 때. 화재가 났을 경우를 가정하여 대비하면 좋겠다.

신입사원들에게 소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초중고 교과목에 소방교육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지만. 물류창고들이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 출고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난 경우를 대비하여 구간 별 레이아웃 정한다면 큰 화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접수번호	136	제 목	깨어보니 대형화재 현장 속
------	-----	-----	----------------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의 진동음에 짜증을 느끼며 일어났다. 데굴데굴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꾸물거리며 구르고, 거친 손길로 핸드폰을 쥐고 전화를 받았다. 룸메이트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다. “얼른 기숙사에서 나와! 대피해야 해!” 애가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나 싶었다. 내 침대 옆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은 이리 평온한데 뭘 대피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인데? 왜 대피해야 해?” 어젯밤 늦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피로에 찌든 대학생은 일주일에 하나뿐인 오전 강의가 없는 날을 이렇게 부산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불을 돌돌 몸에 감았을 뿐이었다. 그때 룸메이트가 말했다. “옆에 체육관 공사하는 곳에서 불났어! 강의실에 있는 사람은 다 대피했어. 너도 얼른 대피해!” 당황했다. 부랴부랴 이불을 걷어내고 창문을 열었다. 매캐한 냄새가 콧구멍을 때렸다. 그 옛날 종이를 태우거나 불꽃놀이를 한답시고 불을 붙였던 그런 냄새가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말하면 안 됨을 알리는 화학약품이 타는 냄새였다. 고개를 팍 꺾어 왼쪽을 돌아보았다. 기숙사 바로 옆의 새로 짓고 있던 체육관이 불에 타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빠르게 창문을 닫고 방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복도 끝에 난 큰 창을 향해 달려가 창밖의 체육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직원들이 물려가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작은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 가장 처음 보였다. 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짓고 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온갖 화학 제품과 건축 자재들이 위험하게 타들어 갔다. 핵폭발이 일어난 후 발생하는 연기가 버섯을 닮아 버섯구름이라 했던가. 마치 핵폭발 후의 연기처럼 버섯 모양의 흑색 연기가 상공으로 끝없이 퍼져갔다. 타오르는 체육관 앞의 운동장에는 학생, 교직원들은 대피를 위해 달려 나가고 있었고 그 뒤로 소방차들이 끝없이 진입하고 있었다. 아수라장이었다. 창밖의 정신없는 풍경과 함께 나의 핸드폰도 미친 듯이 울렸다. 과 단체 대화방이 대화로 터져나갔다. 위험한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옆 건물로 불길이 옮을 위험성이 있다는 대화 내용이 빠르게 대화창을 스쳐 지나갔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 지 꽤 된 이 기숙사 건물로 불길이 조금이라도 옮는다면 화마가 이곳을 순식간에 붉은 혀로 날름 집어삼킬 것이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급하게 물 세수를 하고 일단 옷을 챙겨입었다. 그리고 백팩을 하나 주워들고 귀중품을 쑤셔 넣었다. 손이 덜덜 떨려 물건을 한두 개씩 놓쳤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침착하기 위해 나 자신을 다독였다. 가방을 다 챙기고 복도에 다시 나가 밖의 상황을 살폈다. 불길은 더 커지고 있었다. 다시 방으로 급히 돌아갔다. 방의 구석에서 목감기 대비용으로 사놓았던 손수건을 찾았다. 손수건을 물에 적셔 손에 팍 쥐었다. 이제 나가야 할 때다. 가방을 등에

메고 적신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은 상태로 비상계단으로 빠르게 내려갔다. 1층 로비엔 정신없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사이를 힘겹게 뚫고 기숙사를 벗어났다.

기숙사를 나서자 유리창이란 가림막 없이 나의 눈으로 바라본 화재 현장은 나를 아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나는 어이없는 생각을 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문득 「우주 전쟁」이란 영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외계인의 침공으로 인해 도망치는 사람들과 흐려진 하늘 속 재가 날아다니는 한 장면이 눈앞에서 오버랩되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6층짜리의 건물이 타들어 가며 내뿜는 흑회색 연기,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사람들, 운동장을 가득 매운 소방차들, 타다 말아 구멍이 뚫린 건축 자재들은 건물 밑으로 떨어지고 다 타들어 남은 재가 코앞까지 날아오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춰서서 광경을 쳐다보던 나를 깨운 건 웅웅 울리는 나의 핸드폰이었다. 손수건을 쥐지 않은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리니 대피 못 한 사람은 얼른 대피하라는 과동기들의 걱정이 담긴 연락과 화재로 인한 모든 강의 취소 안내 문자였다. 핸드폰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린 뒤 다시 학교를 벗어나기 위해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다시 코 위를 젖은 손수건으로 짝 누르고 학교를 빠르게 벗어났다.

더는 탄 냄새가 나지 않을 만큼 학교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걸음을 멈추고 학교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소방 헬기가 날아다니고 있었고, 끝없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착잡한 심정으로 학교를 다시 등졌다. 그리고 그사이 연락이 닿은 동기를 만나러 갔다. 동기와 함께 새롭게 올라오는 화재 진압 상황 뉴스를 계속해서 확인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보아하니 3층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불이 난 바로 직후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분들은 빠르게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기사였다. 그리고 화재가 모두 진압이 되었다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한숨을 돌렸다. 동기와 함께 카페에 가 이번 화재의 원인과 서로 얼마나 놀랐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학교로 느릿하게 돌아갔다.

돌아간 학교는 바로 전날 봤던 모습보다 훨씬 을씨년스러웠다. 회색빛 벽면의 건축물은 곳곳이 구멍 나 있었고, 벽면이 갈퀴에 할퀴어진 듯 길게 그을려있었다. 매캐한 냄새가 학교 교정 전체에 깔려 숨을 쉬기 힘들었다. 기침이 계속 나와 전에 썼던 손수건으로 다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숙사로 돌아갔다. 다행인 건 기숙사를 나설 때 문이란 문은 짝 닫았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였다. 느릿하게 아침에 챙겼던 짐들을 다시 정리했다. 씻고 침대에 누우니 종일 단단히 조여졌던 근육이 느슨히 풀어졌다. 하루가 거짓말

같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그렇게 내 인생 첫 대형 화재의 하루가 끝났다.

부스스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들으러 갔다. 그렇게 똑같은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체육관 화재 후 나의 일과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지만, 나의 신체는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바로 기침이었다. 화재 진압 후 약 한 달간 학교에는 항상 매캐한 화학물질 탄내가 났다. 그리고 기관지가 좋지 않던 나는 한 달간 기침을 달고 살았다. 가끔 너무 심한 기침으로 인해 동기들이 폐병에 걸렸냐며 걱정 반 농담 반의 말을 하곤 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화재 대응에 대해 각성을 하게 되었다. 체육관 화재 후 한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 적이 있었는데 체육관 화재를 겪기 전엔 누가 실수로 울렸겠지 하고 모두가 멍뚱멍뚱 앉아 강의를 들었었다. 물론 교수님도 포함해서 말이다. 하지만 체육관 화재 이후 실수로 경보가 울려도 모두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빠르게 일어나 대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또 체육관 화재 직후 기숙사에서 전자레인지 사고로 작은 불이 났었는데 그때도 모두가 침착하게 기숙사를 벗어났고 소방차가 몰려와 불을 빠르게 진압하였다. 예전엔 기숙사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하면 출석부에 이름만 적고 도망치는 사람이 많았다면 체육관 화재 이후엔 모두가 남아 화재 대피 훈련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화재의 위험성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알게 되었고, 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뼈에 깊게 새기게 되었다.

이후 나는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여 교사로 일하고 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반의 담임선생님 대신 재난 대응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담임선생님이 전달해주신 자료를 다 끝냈더니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남았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이 아이들이 재난 상황 대응 방법을 확실히 기억할까 고민하다 나의 체육관 화재 경험이 떠올랐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짧게 화재 대응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바로 컴퓨터로 ○○대학교 화재라고 검색하였다. 저 멀리 고속도로에서도 보일 만큼 워낙 컸던 화재라 검색을 하니 바로 기사와 영상들이 줄줄이 검색되었다. 학생들에게 영상을 먼저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아주 큰 화재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선생님의 학교라고 하니 아이들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선생님도 저기 있었냐고 이구동성으로 묻는 아이들에게 나는 대답해주었다. “선생님도 저기 있었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수업하고 있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 화재를 대피했을까?” 화재 대피 방법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너도나도 대답하기 위해 손을 번쩍 들었고 아직 숙지하지 못한 아이들은 수업 초반에 받았던 재난 대응 학습지를 뒤적였다. 나는 숙지하지 못한 아이들이 모두 화재 대응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주었다. 아이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을 때 한 명씩 발표를 시켰다. “선생님은 불이 났으니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연기를 막기 위해 적신 옷이나 천 같은 거로 입을 막고 대피했을 거예요” “대피 안내를 듣고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며 이동했을 거예요.” “소화기로 작은 불은 끄시면서 도망간 것 아

닐까?” 등 학생들은 각자 아는 방법들을 발표하고 또 서로 대화하며 화재 대피, 대응법을 내면화시켜갔다. 아이들의 시끌시끌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 내가 겪었던 경험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다. “얘들아, 너희라면 선생님보다 더 현명하게 화재를 대피할 수 있겠지?” 아이들이 대답했다. “네! 선생님!” 그 중 장난기 많은 아이는 “저는 소화기를 들고 불도 끌 거예요!” 라고 어깨를 축 울리며 외쳤다. 나의 대타 수업은 성공이었다.

생각해보면 대학생 시절 내가 화재를 대피했던 방법은 화재 대피 매뉴얼의 그대로였다. 어릴 적부터 계속 배워왔던 방법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어렸을 적 짧은 생각에 이런 걸 귀찮게 왜 하나며 투덜거렸던 지역 소방기관과 연계한 화재 대피 수업, 소방 기관에서 실시하던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들이 결국 어른이 된 나의 무의식에 남아 나를 지켰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겪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재난 대응 방법, 예방법 지도의 중요성과 지역 소방기관과의 연계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교사라는 위치에 선 지금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반복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 대응, 예방법 지도를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나의 학생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철저한 예방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겪지 않길, 혹여나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게 피할 수 있길 바라며...